

은퇴준비와 가족부양을 동시에 해야 하는

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

2023. 12. 22.

이규성 연구원

CONTENTS

I. 왜 2차 베이비부머인가?

II.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황과 가족부양 현황

1. 2차 베이비부머 응답자 개요
2. 2차 베이비부머의 재무 현황
3. 2차 베이비부머의 가족부양 실태

III. 시사점

< 요약 >

-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만50대 초반 가정으로서 가정의 생계와 가족부양을 책임지고 있음.

- 계속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은퇴에 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이들이 어떻게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.

- 설문조사 결과,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황과 가족부양 실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.
 - [자산]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7억4,859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, 자산의 83%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.
 - [소득] 월평균 가계소득은 827만원으로 나타났으며, 근로외소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 월 348만원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자산 및 소득 분위간 가구소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.
 - [가족부양 부담] 응답자의 대다수인 78.8%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,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고 있는 ‘더블케어’ 응답자는 24.1%에 달함.

-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공사적 다층연금보장제도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산유동성과 노후 소득원 부족으로 인해 노후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됨.
 -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대부분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은퇴 후 현금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소득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.
 - 특히 자산 하위 20%(1분위)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9%에 달해 노후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.

- 따라서 연금을 포함한 은퇴자산을 축적해 노후에 소득을 마련하고, 추가적인 근로 소득이나 은퇴 후 자산 조성을 통해 노후 현금흐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
I. 왜 2차 베이비부머 인가?

● 우리나라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, 연도별 평균 생존인구수가 가장 많음.

– 베이비부머는 특정 시기에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하는 인구학적 현상으로,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1차 베이비부머 세대로, 1968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보고 있음.

•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류는 당시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전쟁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(1955년-1963년)의 세대를 1차 베이비부머로, 가임여성의 증가로 출생아 수가 증가한 시기(1968년-1974년)에 출생한 세대를 2차 베이비부머로 구분함*.

(*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지만, 2010년 이후 연구(유운도(2013))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1,2차로 구분하기 시작함.)

– 2차 베이비부머세대의 출생연도별 생존자 수는 평균 약 88만명(2021년 기준)으로,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연도별 생존자 수보다 8만명 더 많음.

〈도표 1〉 우리나라 인구와 베이비부머 특징

〈우리나라 인구(2021년 기준)〉

〈1,2차 베이비부머 특징〉

출생연도	구분	1차 베이비부머	2차 베이비부머
		출생연도	1955년~1963년
나이 (2023년 기준)		만 60~68세	만 49~55세
인구수 (2021년 기준)		약 722만명 (출생연도별 약 80만명)	약 615만명 (출생연도별 약 88만명)
특징		은퇴기	은퇴준비기

● 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공사적 다층연금보장체계의 본격적인 대상자로, 향후에 나타날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순차적 은퇴는 연금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
–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장생활 기간 동안 국민연금(1988년)과 퇴직·개인연금(2005년, 1994년)이 도입되면서 다층적 연금보장체계가 구축되었음.

– 2022년에는 50대 초반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는 각각 325만명, 86만명(전체 가입자 대비 16.7%, 13.6%)으로 수 년내에 연금수령을 앞두고 있음.

◎ 2차 베이비부머는 법정 정년보다 일찍 은퇴하게 될 수도 있으며, 근로소득 상실에 따른 소득단절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.

-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만55~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49.4세로 조사됨.
- 2013년부터 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이 60세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8년 이후 출생자는 64세 또는 65세(조기노령연금은 59세 또는 60세)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음.

◎ 2차 베이비부머가 젊어지고 있는 가족 부양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은퇴 후 소득이 낮아진 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
-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모님 기대여명(2022년 75세 기준)은 약 12.6년으로, 부모 부양 부담은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자녀의 독립 기준이 되는 2022년 평균 초혼연령은 2000년(27세)보다 4.8년 늦어져 자녀의 독립이 예상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임.

◎ 이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.

- 본 보고서의 구성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징과 자산, 소득, 지출 등 가계의 재무상태, 가족 부양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.

〈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 개요〉

구 분	내 용
조사 대상	만50~56세 직장인 2,000명 - 서울/수도권, 6개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
조사 기간	2023년 6월 28일 ~ 2023년 8월 7일 (칸타코리아 실시)
조사 방법	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/모바일 조사
조사 내용	2차 베이비부머 세대 직장인들의 전반적인 재무 현황 및 노후준비 수준을 조사 - 가계의 자산, 소득, 지출 등 재무 현황 - 가족부양 - 노후준비 전반

※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나이는 만49~55세지만, 은퇴후보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사나이는 만50~56로 조정하였음.

II.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상황과 가족부양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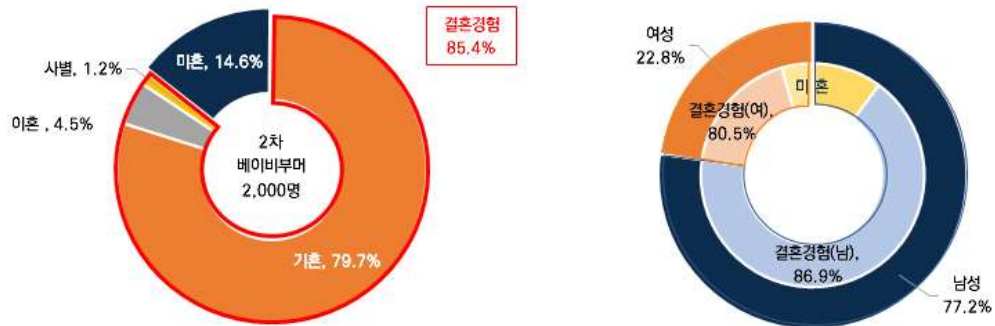
1. 2차 베이비부머 응답자 개요

●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결혼경험 비율은 85.4%이며, 남성의 결혼경험 비율은 86.9%로 여성(80.5%)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.

- 이번 조사에서 50대 초반 여성 직장인의 결혼경험은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40~50세 여성의 결혼경험 비율(91.9%)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• 인구총조사에서 나타난 40~50세의 결혼경험 비율은 87.4%이며, 40~50세 남성의 결혼경험 비율(83.1%)로 조사됨.

〈도표 2〉 2차 베이비부머 응답자의 성별 및 혼인상태
 〈혼인상태〉 〈성별 혼인상태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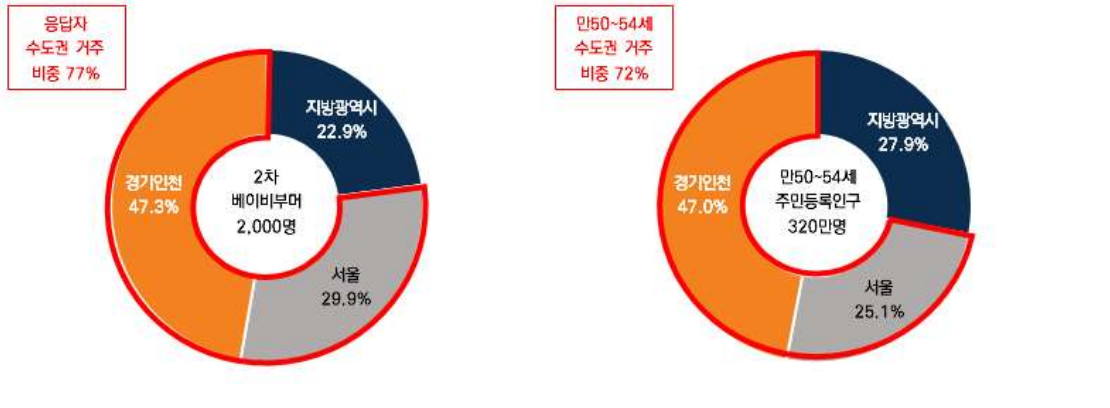
* 결혼경험은 미혼을 제외한 기혼, 이혼, 사별 등으로 결혼을 한번 이상하였을 경우를 말함.

● 수도권 거주 응답자 비율은 77.1%로 실제 만50~54세 수도권 거주비율(72%)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통계청 인구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 거주하는 만50~54세 인구는 약 320만명이며, 이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50~54세 인구는 230만명으로 대도시 거주 인구의 72%를 차지함.

(* 만50~54세의 인구는 약 455만명(2023년 1월 기준))

〈도표 3〉 2차 베이비부머 조사 응답자와 주민등록인구(만50~54세)의 거주지역 분포
 〈응답자의 거주지역〉 〈만50~54세 주민등록인구의 거주지역〉



- ◎ 조사 응답자의 52%가 10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, 이는 전체 직장인 중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비율(약 71%)보다 낮은 수치임.
 - 이번 조사는 사업장별 최소 유입 응답자를 설정하는 방식인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함.
 - (*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은 연령별, 사업장규모별 근로자 분포를 별도로 공표하지 않아 본 조사와 비교가 어려움.)

〈도표 4〉 2차 베이비부머 응답자 및 전체 근로자의 근로사업장 규모
 〈응답자의 사업장규모〉 〈전체 근로자 사업장규모(2021년 기준)〉



2. 2차 베이비부머의 재무 현황

- 2차 베이비부머세대의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)자산 2)소득 3)지출로 나누어 살펴봄.

1) 자산 현황

-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7억4,859만원(중앙값 5억2,000만원)으로 조사됨.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은 83%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이번 설문조사는 50대 초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0대 전체 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(2023년 50대 가구 평균 총자산, 6억452만원)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음.

〈도표 4〉 2차 베이비부머 자산분위별 평균 보유자산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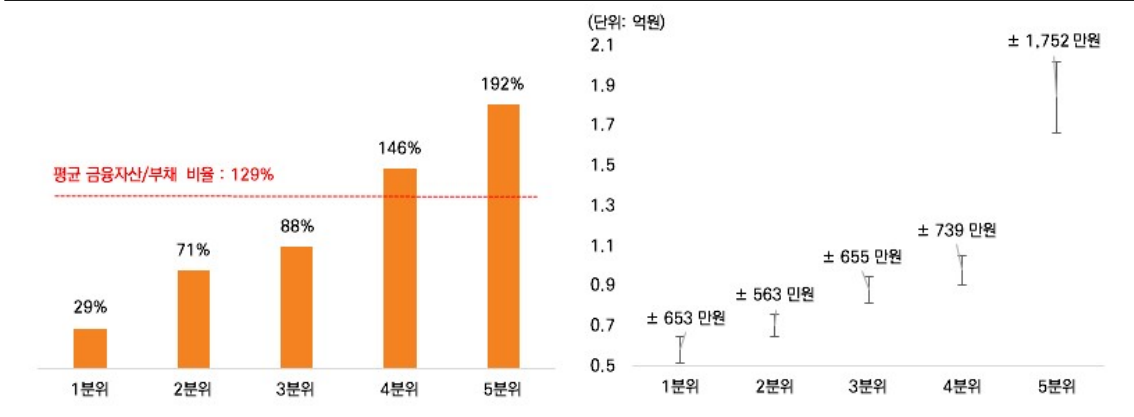
총자산 분위 (단위 만원)		총자산(A)			부채(B)	순자산(A-B)
		금액	금융자산	부동산/기타자산		
전체	금액	74,859	12,907	61,952	10,012	64,848
	비중	100%	17%	83%	13%	87%
1분위 (하위20%)	금액	7,357	1,688	5,670	5,811	1,546
	비중	100%	23%	77%	79%	21%
2분위	금액	28,607	4,968	23,639	6,999	21,608
	비중	100%	17%	83%	24%	76%
3분위	금액	51,263	7,788	43,475	8,825	42,438
	비중	100%	15%	85%	17%	83%
4분위	금액	83,595	14,310	69,285	9,795	73,800
	비중	100%	17%	83%	12%	88%
5분위 (상위20%)	금액	200,786	35,396	165,390	18,419	182,367
	비중	100%	18%	82%	9%	91%

* 자산 분위 구분: 1분위 2억원 미만, 2분위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, 3분위 4억원 이상 6억4천만원 미만, 4분위 6억4천만원 이상 10억7천만원 미만, 5분위 10억7천만원 이상

-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계층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, 응답자의 자산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됨.

- 자산 1분위(하위 20%)의 경우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79%로 전체 평균(13%)보다 높고,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9%로 파악됨.
- 자산 5분위(상위 20%)의 경우 부채 규모는 약 1.8억원으로 다른 분위 대비 2배 수준이지만,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192%로 부채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
〈도표 5〉 2차 베이비부머의 자산분위별 채무부담 현황
 〈분위별 금융자산/부채 비율〉 〈자산분위별 부채평균 표준오차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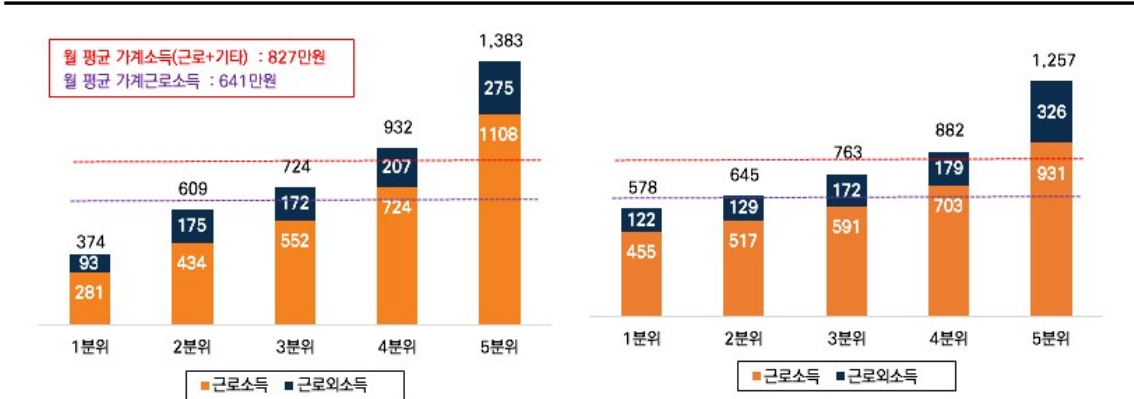


* 표준오차는 표본의 변동성을 의미하며, 표준오차가 작을수록 데이터가 평균 주변에 모여있음을 의미함.

2) 소득 현황

- 월평균 가계소득은 827만원으로 나타났으며, 자산·소득 분위간 가계소득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됨. 특히 소득 5분위(상위20%)와 소득 1분위(하위20%)간 월평균 가계소득 차이는 1천만원 이상으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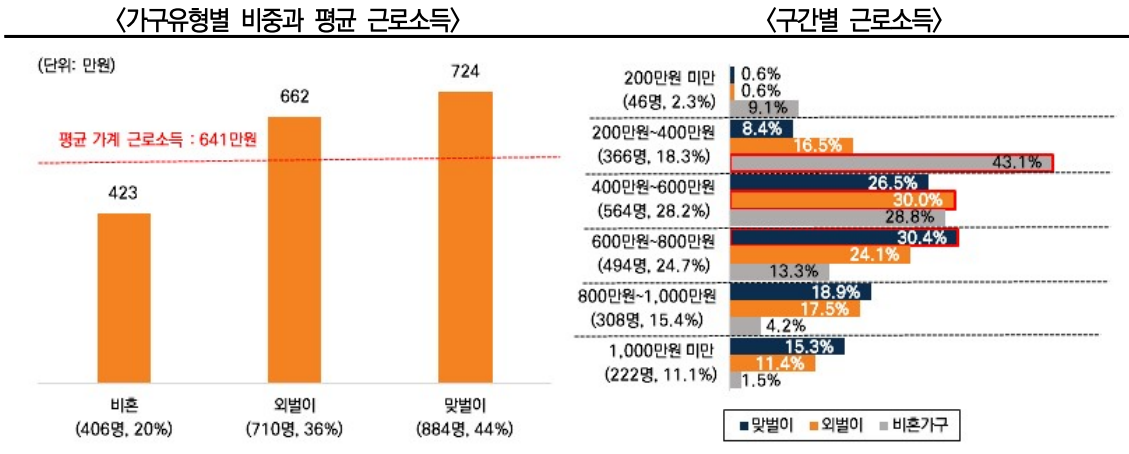
〈도표 6〉 자산 및 소득분위별 가계소득
 〈소득분위별 가계소득〉 〈자산분위별 가계소득〉



* 가계 근로소득 분위 구분: 1분위 390만원 미만, 2분위 390만원 이상 ~500만원 미만, 3분위 500만원 이상 ~ 650만원 미만, 4분위 650만원 이상 ~ 850만원 미만, 5분위 850만원 이상

- 전체 가계 근로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‘400만원 이상~600만원 미만’ 구간에서 가장 높은 빈도(28.2%)를 보임.
- 맞벌이 가구의 경우 ‘600만원 이상~800만원 미만’ 구간이 가장 높은 분포(30.4%)를 보였으며, 비혼 가구의 경우 ‘200만원 이상~400만원 미만’ 구간이 가장 높은 분포(43.1%)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.

〈도표 8〉 2차 베이비부머의 가구/구간별 근로소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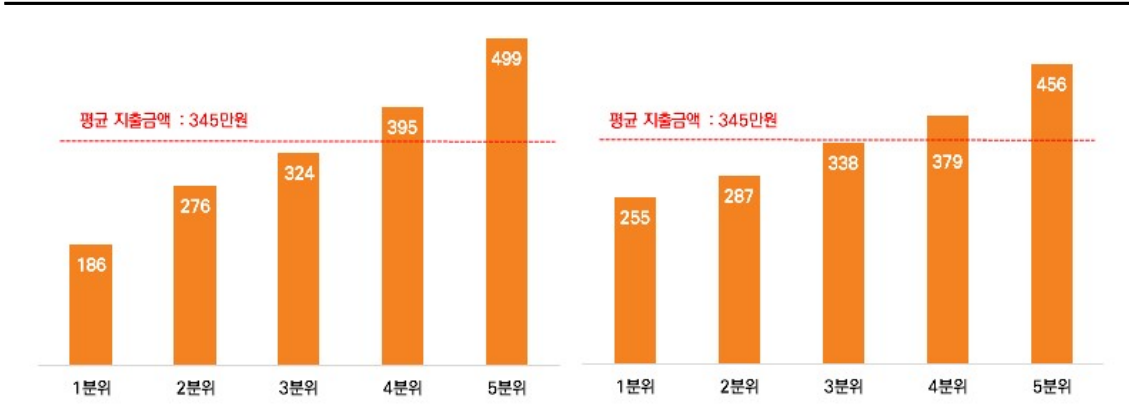


3) 지출 현황

◎ 2차 베이비부머의 월평균 지출은 월 345만원이며, 소득 및 자산 분위가 높을수록 지출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.

- 소득 분위가 한단계 높아질수록 월평균 지출액은 15%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, 자산 분위가 한단계 높아질수록 월평균 지출액은 28%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〈도표 9〉 2차 베이비부머 자산/소득분위별 평균 지출 및 지출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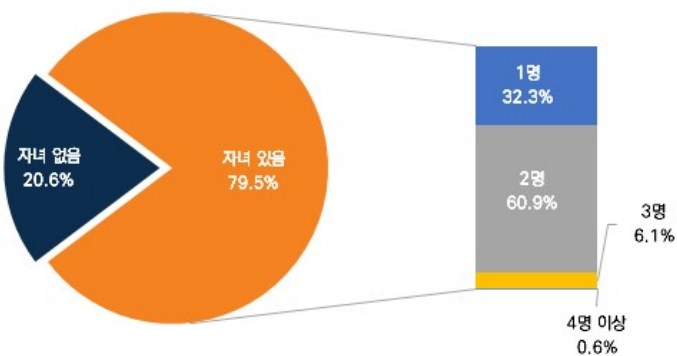


3. 2차 베이비부머의 가족 부양 실태

◎ 전체 응답자의 79.5%는 자녀가 있으며,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(60.9%)이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- 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93.2%가 1~2명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,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응답자는 6.7%에 불과함.

〈도표 11〉 2차 베이비부머의 자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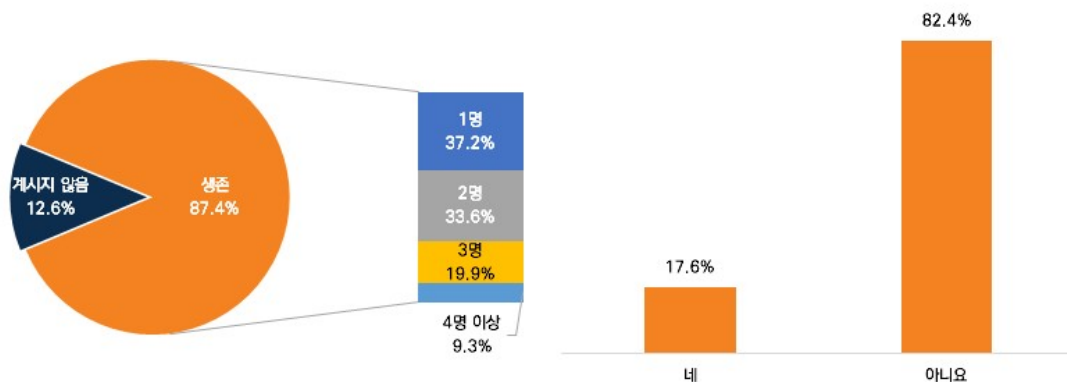
◎ 응답자의 대다수(87.4%)가 부모님이 한 명 이상 생존해 있다고 답했으며, 그 중 17.6%만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
-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고 응답자 중 62.8%는 부모님이 2명 이상 생존해 계신다고 답함.

〈도표 12〉 2차 베이비부머 가족구성(부모)

〈부모님 생존여부〉

〈부모와 동거 여부〉



◎ 응답자의 대다수인 78.8%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24.1%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자산분위별 부양 형태를 살펴보면, 자산 5분위(상위20%)에 속한 응답자가 자산 1분위(하위20%)에 속한 응답자(12.3%)보다 더블케어를 하는 비율(28.1%)이 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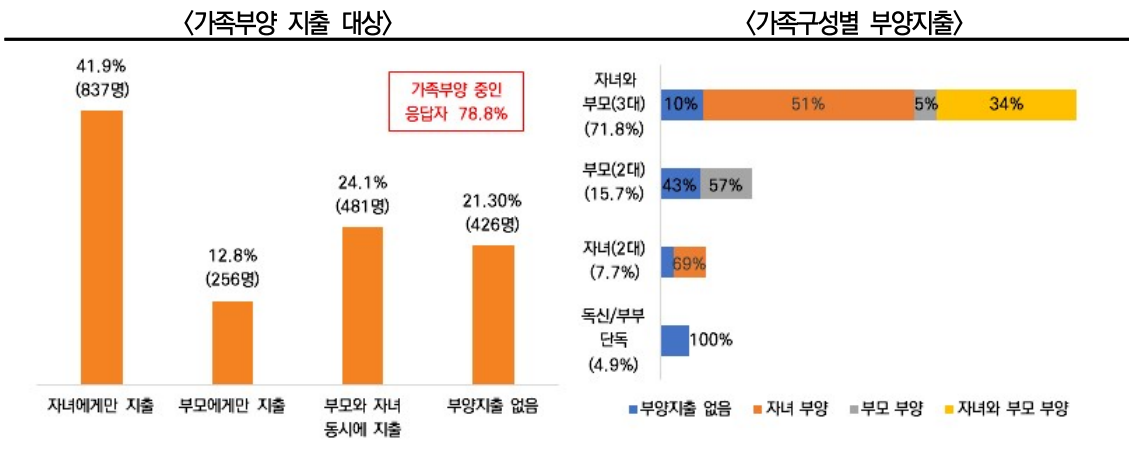
◎ 응답자의 가족 구성을 살펴보면,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성된 3대(代) 가족이 대다수(71.8%)를 차지하며, 가족 규모가 클수록 가족부양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됨.

(* 본 연구의 가족의 개념은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혈연·인연·입양으로 연결된 구성원 집단을 말함.)

- 부모와 구성된 2대(代) 가족은 15.7%, 자녀와 구성된 2대(代) 가족은 7.7%로 파악되고, 부부 단독 또는 독신자는 4.9%로 조사됨.

- 2대(代) 가족의 약 60%가 가족을 부양하는 반면 3대(代) 가족의 90%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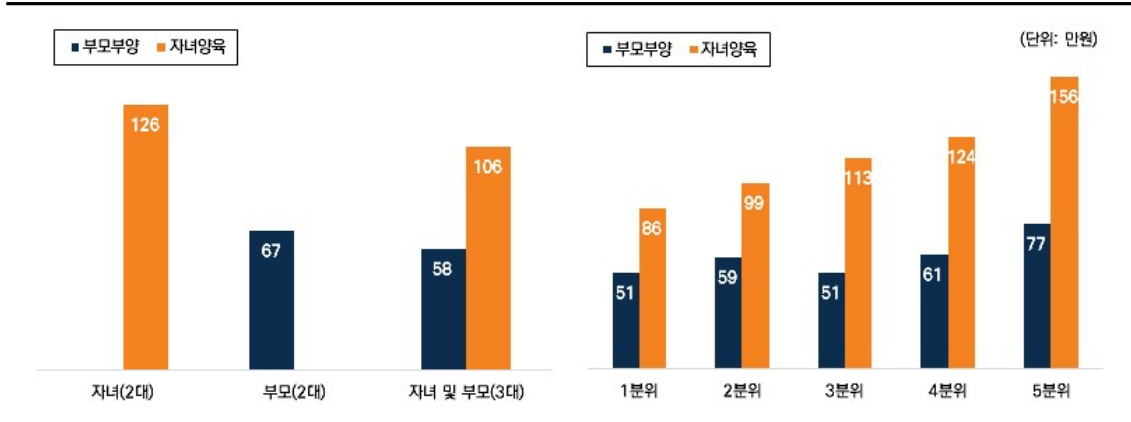
〈도표 14〉 2차 베이비부머의 가족부양비 지출 현황



◎ 부모부양 비용은 50~60만원대, 자녀양육 비용은 100만원 이상으로, 응답자의 재산에 따라 자녀양육 비용은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됨.

- 50~60만원 대의 부모부양비는 자산분위가 증가해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, 자녀양육비는 자산분위별 평균 16%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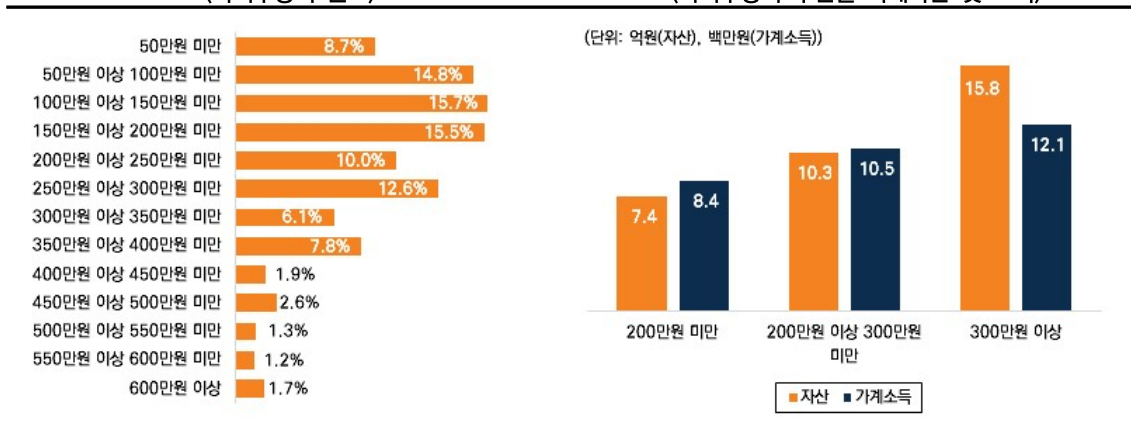
〈도표 15〉 가족 구성별/ 자산분위별 월평균 부양비용
 〈자산분위별 부양형태〉 〈자산분위별 부양비용〉



◎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의 절반 이상(54.7%)이 200만원 미만의 자녀양육(교육)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 2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의 평균 자산은 10.3억원 이상, 월소득 1,050만원 이상인 경우로 분석됨.

- 자녀 관련 비용을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의 자산은 15.8억만원, 월소득은 1,210만원으로 나타남.

〈도표 16〉 2차 베이비부머의 자녀부양비 분포와 지출구간별 재산
 〈자녀부양비 분포〉 〈자녀부양비 구간별 가계자산 및 소득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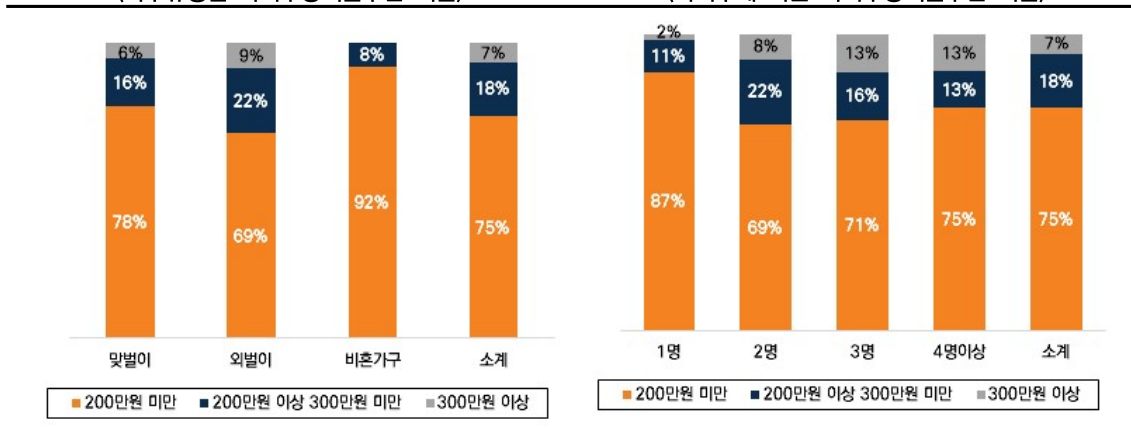
◎ 가구 유형별로 자녀 관련 지출을 살펴보면, 외벌이 가구가 맞벌이 가구보다 자녀 양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, 자녀 수가 많을수록 지출은 증가하지만 자녀가 4명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.

- 자녀 관련 비용으로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외벌이 가구의 비율(9%)은 맞벌이 가

구(6%)보다 높게 나타남.

- 자녀 관련 비용으로 3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네 자녀 가구의 비율은 13%로 세 자녀 가구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.

〈도표 17〉 2차 베이비부머의 자녀부양비 분포와 지출구간별 재산
 〈가구유형별 자녀부양지출구간 비율〉 〈자녀수에 따른 자녀부양지출구간 비율〉



Ⅲ. 시사점

◎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재산과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, 노후 준비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.

- [현금성 자산 부족] 2차 베이비부머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83%로 노후의 생활비 사용을 위한 유동자산이 부족하며, 특히 축적된 자산이 적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[노후 대비 현금흐름 미비] 응답자의 39%는 임대, 연금,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근로외소득이 없으며, 근로외소득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 소득격차는 월 348만원으로 조사됨.
- [가족부양 부담] 2차 베이비부머의 71.8%가 3대(代) 가족을 이루고 있으며, 이들 중 24.1%는 자녀와 부모를 모두 부양하는 ‘더블케어’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[잉여자금은 자녀관련 지출로] 자녀 관련 비용은 자산과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.

◎ 은퇴로 인한 소득 단절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족부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금, 이자 및 배당소득, 기타 임대소득 등으로 노후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짐.

- 2차 베이비부머의 부양형태를 살펴보면, 응답자의 78.8%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, 특히 3대(代) 가족 응답자의 90%는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2차 베이비부머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원 정도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*하며, 특히 자산 1분위(하위20%)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79%에 달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.

(*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적정생활비는 연간 3,888만원으로 조사)

◎ 은퇴 후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 조정을 통한 유동자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 만약 자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근로를 통해 현금흐름을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.

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. 유례 없는 초저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, 저성장과 고령화로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은 커졌습니다.

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.

이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,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는 투자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
미래에셋투자연금리포트 지난 호

... 이전 생략...

- [52] 코로나19가 가져온 퇴직연금 시장의 5가지 변화, 2021.11
- [53] MZ세대의 은퇴인식과 퇴직연금 운용 트렌드, 2021.12
- [54] 늦어지는 은퇴, 생애주기수지 적자에 대비하라, 2022.3
- [55] 적립금운용위원회와 IPS 도입, DB 적립금 운용을 리셋하다, 2022.4
- [56]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, 2022.9
- [57]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, 2022.11
- [58]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, 2022.11
- [59]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, 2022.11
- [60]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, 2023.2
- [61]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, 2023.6
- [62]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배경과 시사점, 2023.11
- [63] 퇴직연금(IRP)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, 2023.12

투자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홈페이지(investpension.miraeasset.com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,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·복제를 금지합니다.
보고서 내용을 인용·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.